

어린이의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According to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

한 윤 옥(Yoon-Ok Han)*
백 진 환(Jin-Hwan Paek)**
장 해 숙(Hai Sook Jang)***
이 보 라(Bo Ra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선정과 조사기준 |
| 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기 위한
작품분석 이론 | 4.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과 비교 |
| | 5. 결 론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책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작품의 분석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 기준으로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분석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도서관 3개관을 대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대출한 도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어린이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새로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according to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s. For this study, the analytical criteria of preference books was mad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borrowed books of 6th grade students collected from 3 elementary school librar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differ according to the children's personality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new reading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various personality typ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키워드: 성격, 성격유형, 선호도서, 선호도서 특성, 선호도서 특성 분석기준

Personality, Personality Type, Preference Books,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Analytical Criteria for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ence Books

-
-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han@kgu.ac.kr) (제1저자)
** 성남정자초등학교 사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oundjewel@hanmail.net) (교신저자)
*** 박달초등학교 사서,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hsook13@hanmail.net) (공동저자)
**** 서울 오금초등학교 사서교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day365@hanmail.net)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34,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00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감성사회에서는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10위권이나 행복성적표는 50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0년 한국인 행복지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63.22로 나타났다(서은국 외 2010).¹⁾ 이것을 2007년의 세계인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자료와 비교해서 보면 한국은 97개국 중 58위이다. 이것을 다시 경제발전 정도와 비교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5,693달러), 터키(1만471달러), 페루(4,452달러) 등과 행복지수가 비슷하며, 우리보다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1만234달러), 베네수엘라(1만1,388달러)조차 경제수준은 우리보다 크게 낮다. 게다가 하루 35.1명꼴로 자살하여 OECD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맞물려 청소년의 자살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사회는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 개개인이 경제수준에 걸 맞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한국인의 불행한 감정과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감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성적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연구자는 도서관과 독서의 개입이 비록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바탕으로 한 품성교육 차원의 독서지도 방안은 폭력적 성향의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벌어진 폭력사태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들은 독서치료를 통하여 지친 심성을 달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의적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면서 경쟁사회에서 쫓기듯 내몰리는 정서를 순화시키고, 상처받는 마음을 다스려주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인성교육에 미치는 독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문제는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온갖 매체가 쏟아져 나오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느리고 참을성 있게 임해야 하는 독서에 어떻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지 그 방법론에 있다.

학교폭력을 크게 다룬 신문의 사설(조선일보 2012.1.17)에서 “학교폭력 처방은 청소년기의 심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학생의 성격에 따라, 놓인 상황에 따라 처방뭉음을 여럿 만들어놓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학생의 성격에 따라, 놓인 상황에 따라”에 주목한다. 이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독

1) ‘2010 한국인 행복지수’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0점,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0점으로 놓고 측정했다.

서치료 방안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 목록”(한국도서관협회 2004, 2005, 2007)을 내놓았으며,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부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윤옥은 ‘성격’을 적용한 독서지도의 가능성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유형에 따라 독서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2010)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실시하면서 관찰한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독서지도를 하는 사서나 사서교사가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지도를 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2011a, b).

그렇다면 성격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도서도 다르지 않을까? 만약 성격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선호도서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면 독서지도를 할 때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는 물론이지만 지향해야 할 성격유형²⁾별 도서를 권할 수 있게 되어 품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상황별 독서목록이 독서치료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성격유형을 적용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독서지도와 독서치료에서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도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어떤지, 그 특성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시작된 실험적 성격의 연구로서, 목적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군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한 작품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그 도서군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에 있다.

1.2 연구 방법과 기대효과

에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동기에 의해 성격유형을 아홉 개로 분류하고, 이들 아홉 개의 성격유형을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묶기도 한다. 즉 삶의 갈등을 어느 신체부위의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지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신체의 세 부위-감정의 중심인 가슴, 정신적 중심이 있는 머리, 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의 중심인 장-사용에 의해 감정형(2, 3, 4번 유형), 사고형(5, 6, 7번 유형), 본능형(8, 9, 1번 유형)으로 분류한다. 같은 부위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좀 더 쉬운 반면, 다른 부위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이해하면 조화로운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9개의 성격유형을 다 적용하지는 못하고 앞서의 연구(한윤옥, 조미아 2011; 한윤옥 외 2012)에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유형으로 지목된 2번(협조자형), 5

2) 에니어그램에서는 9개의 성격유형이 있는데 각 성격별로 순방향과 역방향의 성격유형이 지정되어 있다. 순방향에는 그 성격유형이 지양해야 할 즉, 나쁜 쪽 성향의 성격유형이 있고, 역방향에는 그 성격유형이 지향해야 할 발전적 방향의 성격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완벽을 추구하고 분노가 저변에 깔려있는 1번 유형의 순방향은 4번으로 발달수준이 미숙하게 되면 1번은 저변에 자기 수치심이 깔려있는 4번 성향으로 가기 쉽다. 반면에 낙천적인 7번 성향으로 가게 되면 1번 유형의 경직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되어 좋다.

번(관찰가형), 8번(지도자형) 유형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1)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도서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이 항목들의 신뢰성을 조사한 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2)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의 대출도서를 조사하여 이 책들을 앞서의 분석지표에 의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성격유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검증을 통하여 밝힌다.

(3) 연구결과 나타난 도서군의 특성을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적 요건으로 제시한다.

만약 이번 연구에서 3개 성격유형의 선호도서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밝힐 수 있다면 모든 성격유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밝혀진 선호도서의 특성은 장차 사서들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목록을 작성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독

서지도에서 성격유형과 기존의 상황을 적용한 독서지도 또는 독서치료를 함으로써 품성과 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도서관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기초적 요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기 위한 작품⁴⁾분석 이론

우리 생활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서사물은 신문기사, 역사책, 소설, 영화, 연재만화, 무언극, 무용, 가십, 정신분석 요법의 대화 등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사물 텍스트를 다루게 되고,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텍스트를 도서관의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독서지도나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면 영화, 소설, 그림책, 역사책 등 다양한 종류의 서사물 텍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헌이론에서는 이 서사물 텍스트 중에서도 허구적 서사물(narrative fiction: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헌이론에서의 대상을 제한하는 학자들⁵⁾이 있다. 이들은 허구적 서사물⁶⁾을 일련의 허구적 사건의 서술이라고 하

3) 2번, 5번, 8번 유형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의 중심원에 따라 분류할 경우, 사회적인 대응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호니비언 그룹의 경우,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분류하는 하모닉그룹의 경우 모두에서 어느 한 그룹에서도 겹쳐서 소속되는 유형들이 아니다.

4) 이 연구에서 '작품'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기 위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장르의 도서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5) 토도로프로부터 시작된 서사론은 시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여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시학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의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전자는 채트먼과 프랭스로 대표되며, 이들은 매체의 개방성을 중요하게 바라봄으로써 장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리몬-케넌과 주네트, 미케 발 등에 의하여 대표되며, 언어의 매체적 특수성 즉 문학의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작품분석을 위한 기준은 리몬-케넌 등 구조시학의 안으로 관점을 돌리고 있는 학파의 이론을 주로 택하게 될 것이다.

6) 장편소설, 단편소설, 서사적 시가(詩歌) 등의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길이에 상관없이 허구적 이야기 즐거리를 갖

는데 여기서의 서술(narration)은 (1) 전달내용으로서의 이야기가 송신자에 의하여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소통>과정과 (2) 그 전달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의 “언어적” 성질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영화나 무용이나 무언극과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한 서사물을 허구적 서사물과 구별하고 있다(S. 리몬-케넨 2003). 그런데 여기에서 서사물의 언어적 성질은 다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 성격과 달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좌뇌를 자극함으로써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한운옥 2008)이라고 지목된 것인 만큼 문헌정보학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2.1 문헌분야에서의 작품분석 이론

서사물의 초언어적 구조에 주목하는 경향을 문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문학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학⁷⁾을 새롭게 정립한 리몬-케넨은 문학텍스트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서사물을 스토리, 텍스트, 서술의 세 층위⁸⁾로 나누어 고찰한다. 스토리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재구성된 서술된 사건들을 가리키며, 텍스트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구술 또는 기술된 담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읽는 대상물이다. 그리고 서술은 제작의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뿐이지만, 스토리와 서술과정에 관한 지식을 독자가 획득하는 것도 역시 이 텍스트를 통해서이다. 한편, 여기서 리몬-케넨이 주목하는 독자는 실제적 독자가 아니라 텍스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적 구성물, 즉 텍스트의 환유적 인물(metonymic characterization of the text)로서, 서사학의 대상이 아닌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실제 독자와는 구분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실제 독자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바라다보아야 하는 문헌정보학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독자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스토리와 서술을 접하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서사물에서의 3원론적 서사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실제 독자의 입장과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2.1.1 스토리

리몬-케넨은 스토리의 구성성분으로 ‘인물’과 ‘사건’을 든다. 사건에 대한 논의는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두 가지 층위로 나누는데 표면구조는 관측 가능한 문장조직의 추상적 공식화로서 시간적인 것과 인과적인 것의 결합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심층구조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정적·논리적 관계를 기초로 한다. 심층서사구조의 실례는 레비-스트로스와 그레마스⁹⁾가 내

는 작품을 지칭하는 fiction에 서사학에서 말하는 서사물(narrative)의 개념을 합해서 사용하는 용어임.

7) 우리가 흔히 문학으로 이해하는 이론의 원형은 시학이다. 시학은 문학의, 문학으로서의 체계적 연구로서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언어예술, 문학의 형식과 종류, 문학의 장르나 경향의 분석, 소설작법, 문학작품의 특수한 국면 등 다양한 문제를 또한 다룬다(S.리몬-케넨 2003).

8) 리몬-케넨은 비허구서사 그리고 비서사문학으로부터 허구서사(소설)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서사물을 스토리, 텍스트, 서술의 3원론적 서사구조로 고찰하였다. 이것은 서술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용과 방식(담화)을 강조하는 2원론과 달리 언어매체의 특수성이 살아나게 된다.

놓은 것이며, 이 두 사람의 이론은 모두 2원적 범주 사이의 상관관계로 구성된다. 이것에 관하여 리몬-캐넌은 기존 이론들이 표면구조에서 심층구조로의 이행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층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간격이 놓여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진술은 텍스트에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성질, 의미로 환원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이것이 곧 독자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리몬-캐넌의 입장은 인물에 대한 관점에서도 나타난다.

스토리의 또 다른 성분인 인물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서사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순수파(purist)⁹⁾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인물을 이미 지나 사건들의 일부로만 인정함으로써 작중인물을 텍스트화 시키는 것과 인물을 행동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독립시켜 논의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적 입장¹⁰⁾이다. 리몬-캐넌은 극단적인 구조주의적 입장이나 텍스트 이론을 거부하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한다. 그는 텍스트 이론과 접목된 시학의 방법론 안에서 정서적 공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의 고유한 성격을 기술하기 위해 소설을 서

사물의 일종으로 다루면서도 서사성 자체보다도 소설 고유의 문학성을 기술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스토리 층위의 인물이란 결국 텍스트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들을 '독자가 구성한 결과'라고 해석함으로써 스토리와 텍스트 층위를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독자의 역할'¹¹⁾을 중시한다(리몬-캐넌 2003). 이러한 관점은 인물론이 단순한 유형화나 기능주의적 분석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만 문헌정보학 입장에서는 '독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입장의 서사학적 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는 작중인물 혹은 작품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독자가 몰입됨으로써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가 중심이 되는 체험적 독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자연스럽게 작품 속의 사건이나 작중인물은 물론 이것에 대한 리얼리즘적 인식이 필요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격유형별 선호도서 특성을 찾는 이 연구에서의 작품분석 지표에도 이와 같은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1.2 텍스트

텍스트와 스토리, 서술의 관계는 시간, 인물,

-
- 9) 기호학적 입장이라고 해도 좋으며,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행위, 사건을 재조직하는 구조주의의 최근 입장임.
 10) 인물을 행위에 종속시키는 구조주의의 일반 입장임.
 11) 작중인물을 행동에 종속시키거나 행동을 작중인물에 종속시키는 대신에 이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작중인물이란 사건의 한정 이외의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사건이란 작중인물의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와 같은 논리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립적인 종속관계를 절대적 위계보다는 서사물의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모험소설과 같은 탈심리적 서사물에서는 행동이 우세하게 되고 심리소설의 경우에는 작중인물이 우세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인정하는 축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즉 독자가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작중인물이 행동에 종속될 수 있고, 그와 반면에 독자의 흥미가 작중인물 쪽으로 전환되면 행동이 작중인물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독자에 의한 장르선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초점화에 의해 표현된다. 시간은 스토리의 사건성분들이 텍스트 내에 배열되는 방식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순서, 지속, 빈도에 의하여 텍스트에서 표현된다. 주네트는 특히 말해지는 사건의 시간과 그것을 서술하는 텍스트의 시간의 이중성을 다루면서 스토리와 텍스트에서의 시간의 불일치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스토리에서 사건이 배열되는 순서와 텍스트에서 배열되는 순서의 불일치는 스토리상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텍스트에서는 먼저 서술하는 사전제시 혹은 먼저 일어난 사건을 나중에 제시하는 사후제시 등에 의해 표현된다. 지속에 의하여 텍스트에서 표현되는 시간의 불일치는 스토리에서의 시간분량과 텍스트에서의 시간(공간 분량) 사이의 비율상의 불일치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며, 보통 서술의 속도와 관련된 정지, 장면, 요약, 생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표현된다. 스토리상의 같은 사건이 텍스트에서 몇 번 서술되느냐의 빈도상의 불일치는 일회적 서술, 반복적 서술, 유추반복서술에 의하여 표현된다(리몬-캐넌 2003).

스토리상의 인물이 텍스트에서 재현되는 방식은 텍스트 연속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지표(character-indicator)에 의해 표현된다. 독자들은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이 성격지표들을 추려내어 이것들로부터 인물의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표현되는 인물의 성격지표에는 두 가지 기본유형이 있는데 직접한정과 간접제시가 그것이다. 직접한정은 작중 인물의 특성을 텍스트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목소리를 통해 말하는 방식이고, 간접제시는 어떤 특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 말씨, 외양의 묘사 등에 의하

여 혹은 인물의 물리적 환경(방, 집, 거리, 도시 등)이나 인간적 환경(가정, 사회적 계층) 등을 통하여 그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하는 환유 방식이다. 이외에 인물의 특성을 독자가 깨닫도록 돕는 방식에 유비(類比, analogy)가 있다. 예를 들어 회색빛 황막한 풍경의 묘사는 그 자체로서는 인물의 비관적 성격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러한 풍경묘사는 작중인물의 기초적 특성을 이해하는 한 요소가 되도록 텍스트에 배치하는 것이다(리몬-캐넌 2003).

텍스트에서의 초점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초점화와 서술은 서로 다른 행위임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한다. 한 텍스트에서 초점화자로서의 보는 자와 말하는 자가 동일 인물일 경우도 있지만, 서술자는 다른 사람이 본 것이나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에서 초점화의 문제는 초점화, 초점화 대상, 서술자, 그것들끼리의 거리가 주요 개념이 된다. 이것들을 리몬-캐넌은 외적 초점자와 내적 초점자로 나누어 시공간, 인식, 감정, 규범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즉 외적 초점자는 공간적 조감자로서 스토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 수 있으며, 초점화 대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텍스트 전체의 규범을 일관되게 위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반면에 내적 초점자는 지금-여기에 묶여있고, 당연히 아는 것만 알고 있으며, 주관적이고 감정 이입적이며, 텍스트 전체의 규범 역시 내적 초점자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리몬-캐넌 2003).

문헌정보학에서의 텍스트 이론 수용 가능성 측면은 인물과 인물을 둘러싼 사건 및 성격지표, 그리고 풍경 등의 배경이라고 본다. 시간이나

초점화에 대한 부분은 문학비평이나 창작이론에서 볼 때는 어떻게 스토리를 배열할 것인가(시간), 누구에 의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인가(초점화) 등의 문제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이런 요소들보다는 텍스트 연속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지표(character-indicator)로부터 인물의 특성을 추측하면서 작품을 받아들이고, 사건이나 갈등양상을 통하여 작품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2.1.3 서술

3원론적 서사구조의 구체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서술 층위에 대한 문학이론가들의 논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령 부스나 채트먼은 실제 작자와 독자 사이에 내포작자와 서술자, 수화자, 내포독자로 연결되는 도식을 통하여 텍스트 안에서의 실재적 존재로서 내포작자를 규범화시켰다. 그는 내포작자를 작품 전체의 지배적 의식이며 작품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규범의 연원으로 보고, 텍스트의 모든 성분으로부터 독자에 의하여 추측되고 집성되는 하나의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리몬-캐년 2003). 그러나 만약 텍스트에 서술자가 없다면 내포작자는 독자에게 아무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리몬-캐년으로서 그는 채트먼들과는 달리 내포작자를 비인칭화된 내포적 규범으로 축소시키고 실제 작자, 실제 독자, 서술자, 수화자의 넷만을 서술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리몬-캐년 2003). 그리고 모든 서

술을 디에게시스¹²⁾라는 관점 아래 놓고 대화의 제시 유형을 순수요약에서부터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중 자유간접화법을 소설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법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유간접화법이든 직접화법이든 혹은 요약이든 모두 서술자의 언어로서 작자가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체험하는 현실이 달라지고, 체험과정 자체도 조정된다. 이것이 문학만의 서사적 특징이고, 문학답게 하는 서사적 특징이다(이정원 2012, 세미나자료). 이런 점에서 서술은 문학비평의 한 방편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작자의 언어가 독자의 체험과정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문헌정보학적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작품을 선정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입장의 사서가 서술자의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것이 바로 서사학과는 다른 입장의 문헌정보학적 한계라고 본다.

2.2 문헌정보학에서의 작품분석 이론의 의미

문학분야에서 텍스트를 대하는 입장은 시대적 조류 혹은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미계통의 신비평가들이나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은 텍스트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율적 대상으로 다룬 반면, 그 후의 새로운 방향은 텍스트와 독자 간의 교호적 관계를 중시한다. 특히, 아이셀(Iser) 등은 “하나의 텍스트는 읽혀질 때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가 정밀히 고찰되자면 그것은 독자의 눈을 통하

12) 소크라테스는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의 두 가지 대화 제시 방법을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설명이나 요약 등의 간접화법으로, 후자는 대화나 독백 등의 직접화법으로 보면 된다(리몬-캐년 2003).

여 연구되어야 한다(Iser 1971)“는 말을 통하여 텍스트 자체의 구조보다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작품의 생명력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의식의 참여나 주체-대상 관계의 활성화가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독자에 의한 구체화(concretization) 또는 현실화(realization)를 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한편, 텍스트에 부여할 수 있는 독자의 자유로운 의미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텍스트 역시 그 언어적 규약과 함축성을 통하여 적절한 독자를 “선택”(Eco 1979)하고, 독자군을 형성한다고 함으로써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체의 독자 선택권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리몬-캐넌 2003). 이러한 이론은 독서과정에서 독자가 텍스트에 부여하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독자 자신의 반응이나 그것에 따른 태도의 형성¹³⁾을 특히 주목하는 독자 지향적 접근방법을 택한 문헌정보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독자 지향적 접근 방법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영향은 현상학인데 후설(Husserl)의 이론을 잉가르덴(Ingarden)이 문학에 적용한 이론이라고 한다. 잉가르덴은 자율적 대상과 타율적 대상을 구분하였는데 자율적 대상은 내재적 속성만을 가진 반면 타율적 대상은 내재적 속성에 의식의 참여나 주체-대상 관계의 활성화가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타율적 속성에 속하는 문학작품은 독자들에게 의한 구체화 또는 현실화를 필요(리몬-캐넌 2003)로 하는데 문헌정보학에서는 문학작품의 자율적 대상으로서의 속성보다는 타율적 대상으로서의 속성만을 주된 관심사로 놓고 연구한 것이 많다. 왜냐하면 문헌정보학에서의 작품분석은 작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혹은 행위보다는 ‘도서관의 장서구성을 위한 목적의 선택이론¹⁴⁾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해도 무

-
- 13) 최영임(2011)의 논문에서는 다중지능과 관련된 5가지 주제범위를 정하고, 각 주제범위에 해당하는 목록(‘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에 수록된 도서목록) 중 해당 다중지능의 하위영역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도서를 선정하고 그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지도를 하였으나 도서 자체에 대한 것은 지극히 간략한 언급에 그치고, 이들을 매체로 하여 독서지도를 한 결과로서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제시하였다. 한명자(2004)는 발표불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목록을 만들었지만 텍스트에 대해서는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쳤고, 책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독서치료 효과를 입증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조미아(2006)는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독서교육의 효과로 나타나는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 14) 도서관에서의 장서구성을 위한 선택이론은 책의 본질적 가치에 의한 선택론과 상대적 가치에 의한 선택론이 있다. 전통적 문예비평의 입장에서 볼 때의 도서는 개개의 독자를 초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데 이것을 도서의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s) 또는 절대적 가치(absolute values)라고 하며, 도서의 문헌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 일반 독자가 그들의 흥미, 요구, 능력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책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부수적 가치(incidental values) 또는 상대적 가치(relative values)라고 하며, 사회심리학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책의 제도적 가치는 웰라드에 이어 피니의 도서선택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서 도서 자체는 매우 개별적이지만 이것이 도서관 장서에 유입되면 그것의 한 구성인자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그것이 도서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척도에서 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웰라드의 관리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Wellard는 기존의 도서선택이론과 시카고학파의 독서실태 연구 성과를 응용하여 도서선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 종래의 가치론과 요구론에 도서관의 목적을 더하여 도서선택의 장(場)을 구성하는 요소를 독자와 도서, 도서관의 목적으로 보고 이 기본 3요소를 그대로 선택이론에 반영시켜서 선택할 자료를 문헌적 기준(literary bases), 사회심리학적 기준(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bases), 관리적 기준(administrative bases)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한윤옥 2008).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문헌정보학에서는 선택한 자료가 도서관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지,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이것을 누가 읽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권장도서 목록을 위한 도서선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독자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접하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이르러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을 비롯하여 소수의 연구에서 독자를 변화시키는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텍스트의 성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에서는 독자가 처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에 적합한 도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별 독서목록에 수록된 도서는 스토리에 대한 초록만 소개되고,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엄세영(2005)은 시설청소년들의 독서치료를 위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책을 선정,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지를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여 분석하고, 그 이유를 책 이야기와 함께 해제로 달아놓음으로써 타 연구보다는 텍스트를 주체로 부각시켰다. 임미화(2007)는 독서치료 분야의 여타 논문들이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주된 매체로 선정된 일군의 도서를 사용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혹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연구한 것과는 달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하여 선정된 도서가 갖고 있는 독서치료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독자가 아니라 텍스트에 있다는 점에서 여타 독서치료 분야의 연구논문들¹⁵⁾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외에도 독자보다는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한 개별적 연구들이 소수 있는데 아동의 심리 발달에 따라 변하는 선호도서를 분석한 연구와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한윤옥 1989; 한윤옥 1997). 전자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분석하여 선호도서와 비선호도서¹⁶⁾로 구

15) 정재희(2003)는 1999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출간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시스템 개발'에서의 상황별 독서목록을 참고로 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매체선정을 어떤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할 것인지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 후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희자(2006)는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태도변화를 주목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을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분량을 조정하였지만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에 더 주목하였다. 김수경(2006)도 상황에 입각한 자료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자료자체의 분석보다는 참여자의 변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둔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타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의 평가를 위한 과정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치유서와 추천이유를 조사하여 연구논문에 소개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텍스트 자체의 분석은 아니고 참여자들의 반응에 의한 것이다. 김길자(2007)는 프로그램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도서를 역시 상황별독서목록에 근거하여 선정한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선택된 도서를 변경한 경우는 있다. 그러나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근거이론에 의한 연구방법으로 여대생의 정서회복과정을 표준화된 모델로 제시하는데 주된 관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16) 대출회수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을 선호도서로, 대출회수 1회에 그친 도서를 비선호도서 즉 덜 선호하는 도서로

분하고, 선호도서군에 속한 책들의 텍스트 성분을 형태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도서의 특성이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이들 요소에 의하여 제시하였다.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인 어린이가 주인공이 된 아동도서에서 주인공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적 특성의 차이를 밝혀냈다.

쓰여진 텍스트에는 쓰여지지 않은 텍스트를 독자가 구성하기를 요구하는 실질상의 차원이 있어서 이 실질적 특성이 독서과정의 역동적 성격에 기여하고, 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리고 또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는 독자를 형성한다. 텍스트는 텍스트와 씨름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한 능력을 독자 안에 만들어내며, 독자로 하여금 기왕의 개념을 변화시키거나 세계관을 수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독자인 텍스트에 가져와지는 어떤 종류의 능력의 이미지인 동시에 텍스트 내에서의 그런 능력의 구성과정이기도 하다(리몬-캐넌 2003). 이것이 독자만을 염두에 둔 도서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에서도 앞으로는 텍스트 자체의 독자선택과 형성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에서 양자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성해야 할 것

이며,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문헌정보학적 측면의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의 시도가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독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격유형별로 선호하는 도서군을 뽑아 그 도서군에 속한 책들의 공통적 특성을 찾아내는 이 연구가 될 것이다.

3.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선정과 조사기준

3.1 조사대상 도서의 선정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시작된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도서를 성격유형별 선호도서로 해야 하겠지만 아직 선호도서의 특성이나 선호도서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일단 선호도서로 보고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출도서가 곧 선호도서가 된다는 제한점이 있고, 대출도서와 선호도서를 혼용하도록 한다.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도서의 특성을 찾아내고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분석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전 학습으로 문학에 대한 이론 세미나 수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속한 3개 학교¹⁷⁾에서 성격유형 검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성격을 검사하고, 협조자형인 2번 유형(18명), 관찰가형인 5번 유형(13명), 지도

구분하였음.

17) 연구자들이 사서와 사서교사로 근무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도서관 3개관(군포오금초등학교, 성남정자동등학교, 안양박달초등학교)에서 검사가 수행되었다.

자형인 8번 유형(10명)으로 나타난 6학년 학생들의 대출도서 목록(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을 조사하였다.¹⁸⁾ 성격유형 검사를 수행한 6학년 학생의 대출도서 기록을 수집하였는데 모두 303권이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이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대출한 도서와 각 학교별로 필독서로 지정된 도서가 있어서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시켜 실제 사용된 도서는 280권이다.

3.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개발

3.2.1 선호도서 특성분석을 위한 책의 구성요소

문학분야에서의 작품분석 이론과 문헌정보학에서 텍스트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군과 독자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작품분석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장르와 테마

현실모형과 달리 문학모형은 세계에 대한 개념을 문학교유의 제도에 의거하여 이해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인공의 행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의해 혹은 그 상태가 어떤 테마를 예시하고 있는지 등¹⁹⁾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제도화 시킨 문학모형이 장르다.

문학에서의 장르는 문학작품의 형태, 제재,

양식, 목적 등 문학의 류(類)를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설정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유형적 통일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의 군을 뜻한다(한윤옥 2008). 장르의 관례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어떤 예상은 그럴 듯한 것으로 표현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며, 다른 맥락에서는 기이하게 생각될 요소가 그 장르 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환상문학에서는 공중을 나는 인간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고 수용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것(리몬-캐년 2003)으로서 환상문학을 좋아할지 혹은 사실적인 생활동화를 좋아할지 등의 문제는 독자의 성향이나 성격유형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

문학작품에서의 테마는 이야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상으로 작품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동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스토리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일관된 관점에 의하여 하나로 결합시키는 통일원리가 되는 것이다(한윤옥 2008). 독자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문학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잘 짜진 문학적 구성에 의한 스토리므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인생관이나 사상은 독자의 사회적, 역사적 삶에 대한 가치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성격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테마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에 따라 장르와 테마를 성격유형

18) 2012년 6월 현재 6학년 학생이지만 이들의 대출기록은 2011년 3월2일부터 뽑았기 때문에 실제 학년은 5학년과 6학년에 걸친 대출기록이다. 대출도서 목록은 생략함.

19) 햄릿은 1막1장에서 클로디어스를 죽이지 않는데 만약에 죽인다면 그것으로 연극이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이고, '에밀리를 위한 장미'의 여주인공 집은 미국 남부의 쇠퇴를 나타내기 위하여 황폐해가는 것으로 묘사된다(리몬 캐년 2003).

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영역으로 설정한다.

2) 인물(주인공 혹은 캐릭터)

소설에 있어서 작중인물은 구조적 요소로서 사용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설의 대상과 사건은 작중인물 때문에 존재하며, 그 대상이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관성과 개연성이 그것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작중인물과의 관계 안에서이다(리몬-캐년 2003). 사실 문학도서에서 주인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그 스토리 내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문학적 성패를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릭터가 약하면 이야기도 약해지게 마련이고, 캐릭터가 강력한 이야기는 사건도 재미있고 주제도 보편적이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명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엘리스, 앤, 피터 팬, 톰 소여 하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비롯하여 행동, 공간, 사건, 주제 등이 이들과 어울려 명확히 떠오른다. 다른 어느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작품만

의 특성이 인물 하나로 수렴되는 현상, 그리고 그 인물이 하나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는 현상은 특히 아동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스토리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비극적 인물과 희극적 인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전형적(typical) 인물과 개성적(individual) 인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포스터의 분류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는 1927년에 <소설의 양상(Aspects of novel)>이라는 책에서 캐릭터를 평면적 캐릭터²⁰⁾와 입체적 캐릭터²¹⁾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모든 캐릭터를 평면적 캐릭터와 입체적 캐릭터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런 범주를 대표하는 훌륭한 캐릭터도 많지만 양쪽 어디에도 확실히 들어맞지 않는 캐릭터²²⁾도 많다(한운옥 2008). 독자들이 선호하는 도서군의 특성을 찾아낸 연구(한운옥 1989)에서는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기 위한 내용 분석지표로 문장의 난이도, 주인공의 성별, 연령, 직업, 가정환경, 소재, 테마, 배경, 결말을 들고 있다. 미국 내의

20) 한 인물의 성격이 애초부터 한두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서 이야기 내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로 세 자매나 형제가 나오는 이야기에서 위의 둘은 언제나 못생기고 심술궂은데 비해 막내는 잘생기거나 예쁘고 늘 착한 경우로 나타난다.

21) 평면적 캐릭터와 달리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말쑥꾸러기였지만 얌전한 아이로 변하거나 징징거리던 응석받이가 의젓하게 철이 드는 경우 등인데 변화의 계기는 내면의 성숙, 세상에 대한 적응, 외부와의 발전적 소통 같은 요소들이다. 주로 아이들이 철이 들고 세상 이치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의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에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성장소설로 분류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피노키오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만 충실하다가 그런 자아를 누르고 사람 노릇, 아들 노릇을 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표현된다.

22) 피터 래빗의 이야기에 나오는 피터와 벤자민 버니에서의 피터는 아주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혼자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서 온 정원을 헤집으며 뛰어다니던 피터가 벤자민 버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소심하고 겁 많고 징징거리는 토끼가 된다. 톰 소여는 온갖 일탈과 반항과 말쑥을 일삼다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죽을 뻔하던 위기를 넘기면서 막대한 보물을 차지한 뒤에 얌전하게 사회로 복귀하더니 허클베리 핀까지 회유하려 든다. 말괄량이 삤삤도 마찬가지이다. 행동 양태와 언어 습관으로 보자면 뚜렷하게 일관성이 있는 개성이 있어서 평면적 캐릭터로 보이지만 그 아이가 주변에 일으키는 파장의 강도와 범주를 보면 도저히 평면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멋진 캐릭터로서 어떤 하나의 용어로 못 막아 설명하는 것이 무리일 정도다.

아시아계 이민인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을 아동도서 속의 주인공을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한윤옥 1997)에서는 주인공의 특성을 신체적 특성(연령, 성), 사회적인 신분(교육수준, 영어능력, 직업, 스토리상의 역할), 개인의 성격적 특성(17개 소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주인공의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 부모의 직업,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가족의 가치관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고, 이에 덧붙여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에 대하여 역시 연령과 성, 신분상의 위치로 그 인물과의 관계를 묻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의 성별,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은 서사학에서의 인물론에 적용하기 좋은 요소들로서 결국 양쪽 분야 모두에서 작품을 분석할 때 작중인물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군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항목으로 인물을 우선적 분석대상으로 하고, 인물분석을 위한 하위요소를 기본지표, 가정지표, 성격지표(사건 혹은 갈등상황 대처태도)로 한다.

3) 배경

배경은 소설이나 희곡에서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 소설의 배경에서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 주인공과 등장인물이 아무리 훌륭하게 그려져 있다고 하여도 그것과 조화된 배경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등장인물은 허공에 뜨게 되어 진실성이 없어진다. 잘 어울리는 배경 속에서만 등장인물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든 공상적인 것이든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문학작품에는 당연히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독자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움직임이나 사상이나 배경 등을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성과 자연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어느 지역적 혹은 시대적 배경 하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경우라면 각각 그 지역이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린(R. Green 1959)이나 지글러(C. Ziegler 1971)가 아동도서에 나타난 인간관계나 인물들의 상호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공간으로서의 배경을 조사 대상요소의 하나로 선택하여 분석한 것은 그러한 중요성 때문이며(한윤옥 2008), 어린이들의 선호도서 결정요소를 연구한 선행연구(한윤옥 1989)에서 배경을 택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4) 결말

독자들이 읽는 스토리는 사건들의 참여자와 함께 텍스트에서의 배치로부터 요약되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재구성된, 서술된 사건들을 가리킨다. 텍스트는 어떤 사건들을 구술 또는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담화로서 이것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서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들이 결합되어 사건의 연속이 되고, 그 연속성이 또 결합해서 스토리가 될 때 작용하는 원리는 시간적인 연속(temporal succession)과 인과 관계(causality)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읽어나갈 때 독자들은 흔히 텍스트의 처음 단계에서 제시된 정보나 태도로 모든 것을 비추어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텍스트는 최초의 인상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일차 효과를 쫓는 독자의 경향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러한

기제에 대립되는 것이 최근 효과로 독자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제시된 항목에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동화시키게 하는 기법이다. 그러므로 서두나 말미에 어떤 항목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최종적 결과뿐만 아니라 독서 과정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리몬-캐넌 2003)고 하는데 디킨슨(E. Dickinson)은 문학이 사람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인간 상호관계에서의 불행한 측면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디킨슨과 거의 같은 문학사적 비중을 차지하는 볼드윈(J. A. Baldwin)은 문학이 인간의 불행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생의 보다 더 행복한 측면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한운옥 2008). 이러한 문학이론에 따라 성격유형별로 독자 간에 결말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 문학이론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론을 참고하여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작품 분석영역을 장르, 테마, 인물, 배경, 결말로 설정하고, 21개의 분석 지표와 80개의 분석항목을 정하였다(〈표 1〉 참조).

3.2.2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준 개발

〈표 1〉과 같이 선호도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분석기준으로 영역과 지표,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문가 집단²³⁾에게 보내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성격유형별 대출도서 목록에서 작품 2권을 선택하여 기준을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²⁴⁾ 이상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기준 전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지표가 다양하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 없어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다.

②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선호하는 문학작품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이 참 재미있었고, 설정한 분석기준도 적절하다고 본다. 이 연구가 어려운 여정을 넘겨서 발전되면 현장에서 문학교육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시하기에 좋을 것 같다.

③ 부모상황, 경제 및 주거상황 등 스토리 내에서 처음과 다르게 변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장르에서 비문학자료 분석항목과 소설 분석항목이 모호한 점이 있다.

② 테마와 소설의 종류 중 일부가 겹칠 가능

23) 국어국문학과 교수 1인, 문헌정보학과 교수 1인, 아동문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아동문학 강사로서 초등학교 도서관 봉사도우미인 학부모 1인, 교육학석사(사서교육 전공) 학위를 소지한 중학교도서관 사서 1인, 교육학석사(사서교육 전공) 학위를 소지한 어린이공공도서관장 1인으로 구성함.
24) 2012년 6월 27, 28일 양일간 성남정자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공동연구원 3인, 도서관 봉사도우미 학부모(독어독문학 학사, 정치외교학 학사), 인근의 중학교 사서(K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졸업), 군포 오금초등학교 대학생 인턴(한세대학교 4학년, 경영학전공 여학생 / 안양대학교 3학년, 국어국문학전공 남학생)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품분석을 실시함.

〈표 1〉 작품분석 1차 기준

분석 영역		분석 지표	분석 항목
장르		문학	① 시, 산문(논픽션) ② 소설(픽션)
		소설의 종류	① 순정(서정)소설 ② 명랑소설 ③ 역사소설 및 전기 ④ 모험 및 탐정·추리소설 ⑤ 과학(공상과학)소설
		비문학	① 인문사회과학 ② 자연 과학 ③ 역사 ④ 예술
테마		테마	① 사랑(가족간의 사랑 포함) ② 우정 ③ 삶과 죽음 ④ 의지, 투지, 극복 ⑤ 팬타지, 유토피아(공상과학) ⑥ 탐험, 괴기, 추리 ⑦ 자기 성장 ⑧ 권선징악 ⑨ 과학 ⑩ 기타
인물	기본지표	성별	① 남자(수컷) ② 여자(암컷)
		연령	① 어린이(20세 미만) ② 성인(20세 이상) ③ 전 생애 ④ 기타
		외모(신체적건강)	① 매우 좋음 ② 양호함 ③ 나쁨
		능력(성적포함)	① 매우 좋음 ② 양호함 ③ 나쁨
		직업	① 국가원수 등 최고위직 ② 군인(경찰, 탐정, 탐험가 포함) ③ 교사(간호사 포함) ④ 전문직(의사, 법률가, 학자 포함) ⑤ 예술가 ⑥ 성직자 ⑦ 학생 ⑧ 농부, 어민, 상인, 기능공 등 ⑨ 기타
	가정지표	경제 및 주거상황	① 매우 좋음 ② 양호함 ③ 나쁨
		부모현황	① 양 부모 ② 편부 혹은 편모 ③ 조부모 혹은 조부 및 조모(부모 없이)
		형제자매	① 형제자매 ② 외동이
	성격지표 (사건 혹은 갈등상황 대처태도)	문제인식	① 매우 높음 ② 양호함 ③ 낮음(나쁨)
		문제해결방법	① 일탈 혹은 회피 ② 흐름에 맡김 ③ 이성적, 적극적 해결
		시간적 대처	① 과거지향적 ② 현재지향적 ③ 미래지향적
		대인관계	① 매우 좋음 ② 양호함 ③ 나쁨
		캐릭터 특성	① 평면적 캐릭터 ② 입체적 캐릭터 ③ 혼재
배경	시대적 배경	① 과거 ② 현재 ③ 미래 ④ 시공간 초월	
	장소적 배경	① 역사 속의 과거 장소 ② 현재 지구상의 어느 곳 ③ 미래 어느 시점의 낯선 곳 ④ 시공간 초월의 공상세계 ⑤ 기타	
	처한 상황	① 일상 ② 공상(낯섬) ③ 기타	
결말	결말	① 행복한 결말 ② 비극적 결말 ③ 해독불능(결정 불능)	

성이 큰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모험, 탐험소설 등과 테마에서의 모험, 탐험 등이다.

③ 성별에 있어서 요정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의심스럽다.

④ 외모와 건강상황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결합시켜야 할지 혼돈스럽다. 예를 들면 잘생긴 외모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등이다.

⑤ 최근의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재혼가정, 고아 등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⑥ 시간적 대처 지표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

⑦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 기준에서

인물과 배경은 반영되었지만 사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므로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은 인물과 사건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인물의 사건에 대한 대처 자세로 갈등 양상과 갈등대상, 적대감 혹은 친밀감을 갖는 인물로서의 반동인물²⁵⁾을 추가하고 결말을 그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길 바란다.

⑧ 결말이 영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비중이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⑨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 시대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으로, 장소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으로, 결말에서 해독불능(결정불능)은 열린 결말로 수정하길 권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스토리 내에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스토리 내에서의 비중이 어느 쪽에 주어져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수정하였다.

① 장르를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고, 문학을 소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을 문헌정보학에서의 십진분류를 적용하여 주제항목을 설정하고, 문학지표를 시와 소설, 산문으로 구분하였다.

② 테마 지표에서는 팬타지, 유토피아 항목

을 환상 및 공상(마법 및 마술포함)으로 수정하였다.

③ 주인공 영역의 성별 지표를 남자, 여자, 기타(성별이 나타나지 않음)로 수정하였다.

④ 인물영역의 가정지표에서 부모현황을 친부모, 한 부모, 재혼가정, 조손가정, 고아 및 기타로 수정하였다.

⑤ 배경영역의 시대적, 장소적 배경이라는 용어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으로 수정하였다.

⑥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이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인물과 배경은 분석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건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물의 갈등이 주로 심리적인지, 사건자체가 더 부각이 되는지(행동 중속)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갈등(사건)이 분석영역으로 설정되고, 분석지표로 결말(사건의 결말을 뜻함), 갈등양상, 갈등대상, 반동인물, 분석항목을 각 지표의 성격에 따라 주로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는지,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행동으로 처리하려는지, 외부사회 전체에 대한 갈등상황(부패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인지 등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분석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25) 흐루쇼프스키(Benjamin Hrushovsky)는 작중인물은 각 요소들이 점점 증대하는 통합력의 범주 속에 집합되는 나뭇가지 모양의 위계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두세 가지의 세목을 하나의 통합적 범주 안에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기본유형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작중인물이 매일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하는 습성이 또한 어머니와 매일 말다툼을 한다는 습성과 결합되어 <X와 그 어머니의 관계>로 일반화될 수 있고 여기에 애증의 양가감정이라는 분류 표지가 첨가될 수 있다. 이 관계는 다음에 그의 아내나 동료, 상사,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유사한 일반화와 결합되어 <X와 타인과의 관계>라는 고위의 범주를 형성하게 된다. 이 범주는 또 같은 등속의 다른 일반화(예컨대 X의 세계관, 말씨, 행동)의 국면들과 결합되어 결국 작중인물의 성격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도 있고 그 밖의 다양한 특성들이 결합하여 그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리몬-캐넌 2003, 70-71).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 반동인물을 갈등영역에 포함시킨다.

〈표 2〉 작품분석 2차 기준

분석영역		분석지표	분석항목
장르		주제(KDC)	① 총류 ② 철학 ③ 종교 ④ 사회과학 ⑤ 자연과학 ⑥ 기술과학 ⑦ 예술 ⑧ 언어 ⑨ 문학 ⑩ 역사
		문학구분	① 시, 동시 ② 소설(픽션) ③ 산문(논픽션)
테마		테마	① 사랑(가족간의 사랑 포함) ② 우정 ③ 삶과 죽음 ④ 의지, 투지, 극복 ⑤ 환상 및 공상(마법 및 마술 포함) ⑥ 탐험, 괴기, 추리 ⑦ 자기 성장 ⑧ 권선징악 ⑨ 과학 ⑩ 역사 ⑪ 기타
인물 (주인공)	기본지표	성별	① 남자(수컷) ② 여자(암컷) ③ 기타(성별이 나타나지 않음)
		연령	① 어린이(20세 미만) ② 성인(20세 이상) ③ 전 생애 ④ 기타
		외모(신체적건강)	① 좋음 ② 보통 ③ 나쁨
		능력(성적포함)	① 좋음 ② 보통 ③ 나쁨
		직업	① 국가원수 등 최고위직 ② 군인(경찰, 탐정, 탐험가 포함) ③ 교사(간호사 포함) ④ 전문직(의사, 법률가, 학자 포함) ⑤ 예술가 ⑥ 성직자 ⑦ 학생 ⑧ 농부, 어민, 상인, 기능공 등 ⑨ 기타
	가정지표	경제 및 주거상황	① 좋음 ② 보통 ③ 나쁨
		부모현황	① 친부모 ② 한부모 ③ 재혼가정 ④ 조손가정 ④ 고아 및 기타 가정 형태
		형제자매	① 형제자매 ② 외동이
	성격지표 (사건 혹은 갈등상황 대처태도)	문제인식	① 매우 높음 ② 양호함 ③ 낮음(나쁨)
		문제해결방법	① 일탈 혹은 회피 ② 흐름에 맡김 ③ 이성적, 적극적 해결
		시간적 대처	① 과거지향적 ② 현재지향적 ③ 미래지향적
		대인관계	① 매우 좋음 ② 양호함 ③ 나쁨
		캐릭터 특성	① 평면적 캐릭터 ② 입체적 캐릭터 ③ 혼재
	배경	시간적 배경	① 과거 ② 현재 ③ 미래 ④ 시공간 초월
		공간적 배경	① 역사 속의 과거 장소 ② 현재 지구상의 어느 곳 ③ 미래 어느 시점의 낯선 곳 ④ 시공간 초월의 공상세계 ⑤ 기타
처한 상황		① 일상 ② 공상(낯설) ③ 기타	
갈등(사건)	결말	① 행복한 결말 ② 비극적 결말 ③ 열린 결말	
	갈등양상	① 심리적 갈등(자신과의 싸움) ② 행동상의 갈등(사건과의 싸움) ③ 외부 사회와의 갈등	
	갈등대상	① 인물(인간관계) ② 사회나 조직문화 ③ 자기 자신(욕망)	
	반동인물	① 악인 ② 일상인(주변인물 등) ③ 자기 자신(욕망)	

4.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과 비교

성격유형별로 좋아하는 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출해서 읽은 책들의 구성요소들이 성격유형과 관련성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두 23개의 분석지표로 구성된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주제, 주인공의 성, 연령, 시간적 대처, 캐릭터 특성,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처한 상황, 갈등양상, 갈등대상, 반동인물 등 모두 11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 3〉 성격유형과 책의 구성요소간의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 결과

변수	카이제곱	유의수준	유형별 특징		
			2번 유형(협조자) 특징	5번 유형(관찰가) 특징	8번 유형(지도자) 특징
주제(KDC)	17.706	0.007	문학이 약 80%로 매우 높고 인문사회가 약 5%로 매우 낮음	역사의 비율이 1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과학과 인문사회의 비율이 14%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캐릭터 특성	15.697	0.003	입체적 캐릭터	입체적 캐릭터	평면적 혹은 혼재한 캐릭터
연령	15.252	0.000	어린이가 거의 90%	성인이 35%	어린이가 거의 90%
성별	8.157	0.017	여주인공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움	여주인공이 약 30%	여주인공이 25%
시간적 대처	10.278	0.036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현재지향적
시간적 배경	19.809	0.001	현재 70%	과거와 현재가 비슷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나 미래/시공초월의 비율이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높음
공간적 배경	20.181	0.000	시간적 배경과 비슷	시간적 배경과 비슷	시간적 배경과 비슷
처한 상황	9.244	0.010	일상이 84%	일상이 85%	공상이 35%
갈등 양상	10.007	0.040	심리적 갈등이 다수	행동상의 갈등이 다수	대체로 균등하나 외부 사회와의 갈등 비율이 타 성격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갈등 대상	21.961	0.000	인물과의 갈등이 매우 많음	대체로 균등함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매우 드뭄
반동 인물	18.479	0.001	일상과의 갈등이 대부분임	일상과의 갈등이 과반 정도임	일상과의 갈등이 과반 정도임

테마, 주인공의 부모현황, 외모, 능력 등 12개 분석지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과 책의 선호 사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11개 분석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4.1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제

대출한 도서의 주제분야(한국십진분류)는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7.706, p=0.007, n=280$),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서 2번 유형은 문학, 5번 유형은 역사, 8번 유형은 과학과 인문사회 도서를 더 많이 대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2번의 특성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다. 이들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과학이나 역사, 인문사회과학 등 지식정보도서를 훨씬 덜 좋아하고 인물과 사건이 얽힌 문학도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성격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표 4〉 참조).

4.2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의 성별

대출한 도서의 주인공의 성별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8.157, p=0.017, n=196$), 세 유형 모두 남자가 주인

〈표 4〉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제

			KDC 4구분				전체
			인문·사회	과학	문학	역사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5	6	78	8	97
		성격유형중 %	5.2%	6.2%	80.4%	8.2%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12	9	53	17	91
		성격유형중 %	13.2%	9.9%	58.2%	18.7%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15	13	55	9	92
		성격유형중 %	16.3%	14.1%	59.8%	9.8%	100.0%
전체		빈도	32	28	186	34	280
		성격유형중 %	11.4%	10.0%	66.4%	12.1%	100.0%

공인 도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여자가 주인공인 도서를 더 선호하며, 8번 유형은 남자가 주인공인 도서를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보다 3배 가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유형인 8번의 성격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표 5〉 참조).

4.3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의 연령대

대출한 도서의 주인공의 연령대는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5.252$,

$p=0.000$, $n=183$),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서 유형 5가 성인이 주인공인 도서를 대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의 주인공은 자기와 비슷한 연령대인 경우가 많다(한윤옥 1989; 한윤옥 2008). 그런데 5번의 성격유형은 정보수집가, 관찰가, 사색가 등으로 표현된다. 주인공이 성인인 도서를 다른 유형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년배의 아이들과의 인간관계에 얽힌 이야기보다는 사색가로서 한발 떨어져 사물을 바라다보는 5번 유형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성인들의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5〉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의 성별

			성별		전체
			남	여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43	39	82
		성격유형중 %	52.4%	47.6%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41	18	59
		성격유형중 %	69.5%	30.5%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41	14	55
		성격유형중 %	74.5%	25.5%	100.0%
전체		빈도	125	71	196
		성격유형중 %	63.8%	36.2%	100.0%

〈표 6〉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의 연령대

			연령		전체
			어린이	성인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67	8	75
		성격유형중 %	89.3%	10.7%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35	19	54
		성격유형중 %	64.8%	35.2%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48	6	54
		성격유형중 %	88.9%	11.1%	100.0%
전체		빈도	150	33	183
		성격유형중 %	82.0%	18.0%	100.0%

4.4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시간적 대처 구분

대출도서의 시간적 대처 유형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0.278$, $p=0.036$, $n=200$), 성격유형 2와 성격유형 8은 현재지향적인 도서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반면에 성격유형 5는 미래지향적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니어그램에서 감정형에 속하는 2번, 3번, 4번은 현재지향적이고, 사고형인 5번, 6번, 7번은 미래지향적, 본능형인 8번, 9번, 1번은 과거지향적이라고 한다. 2번 유형이 다른 유

형에 비하여 현재지향적인 도서를 대출한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고, 5번 유형이 미래지향적인 도서를 대출한 비율이 높은 결과는 성격적 특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과거지향적인 8번 유형이 과거지향적인 도서를 대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표 7〉 참조).

4.5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

대출도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은 성격 유형별

〈표 7〉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시간적 대처 구분

			시간적 대처			전체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9	50	23	82
		성격유형중 %	11.0%	61.0%	28.0%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10	23	28	61
		성격유형중 %	16.4%	37.7%	45.9%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3	32	22	57
		성격유형중 %	5.3%	56.1%	38.6%	100.0%
전체		빈도	22	105	73	200
		성격유형중 %	11.0%	52.5%	36.5%	100.0%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5.697$, $p=0.003$, $n=199$), 성격유형 2와 성격유형 5가 입체적 캐릭터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성격유형 8은 평면적 캐릭터나 입체적 캐릭터, 혼재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작품을 분석한 연구원들에 의하면 2번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분량이 많고, 스토리가 긴 도서를 대출하였다고 한다. 스토리가 길면 자연스럽게 입체적 캐릭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5번 유형은 사고형이기 때문에 평면적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받아들여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8번 유형에 비하여 2번과 5번 유형의 학생들이 입체적 캐릭터

가 나오는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표 8〉 참조).

4.6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시간적 배경

대출도서의 시간적 배경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9.809$, $p=0.001$, $n=202$), 성격유형 2는 현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고, 성격유형 5와 8은 과거와 현재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 성격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시간적 배경이 현재인 이야기를 훨씬 좋아하는데 이것은 현재에 시점이 가 있는 2번 유형의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표 9〉 참조).

〈표 8〉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 주인공의 캐릭터 특성

		캐릭터 특성			전체	
		평면적 캐릭터	입체적 캐릭터	혼재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16	48	17	81
		성격유형중 %	19.8%	59.3%	21.0%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10	40	11	61
		성격유형중 %	16.4%	65.6%	18.0%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18	18	21	57
		성격유형중 %	31.6%	31.6%	36.8%	100.0%
전체		빈도	44	106	49	199
		성격유형중 %	22.1%	53.3%	24.6%	100.0%

〈표 9〉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3구분			전체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시공초월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16	57	8	81
		성격유형중 %	19.8%	70.4%	9.9%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25	30	6	61
		성격유형중 %	41.0%	49.2%	9.8%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20	24	16	60
		성격유형중 %	33.3%	40.0%	26.7%	100.0%
전체		빈도	61	111	30	202
		성격유형중 %	30.2%	55.0%	14.9%	100.0%

4.7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공간적 배경

대출도서의 공간적 배경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181, p=0.000, n=202$). 성격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현재 지구상의 어느 곳이 배경이 된 이야기를 훨씬 좋아하는데 이것은 현재에 시점이 가 있는 2번 유형의 성격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표 10〉 참조).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244, p=0.010, n=198$). 전반적으로 일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격유형 8은 상대적으로 공상(혹은 낮선 상황)의 비율이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격유형 2는 일상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도 역시 현재지향적인 2번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표 11〉 참조).

4.8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

대출도서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성격 유형

4.9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갈등 양상

대출도서의 갈등 양상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0.007, p=0.040$,

〈표 10〉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3구분			전체	
		역사속의 과거 장소	현재 지구상의 장소	미래 또는 시공 초월한 공상세계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11	60	10	81
		성격유형중 %	13.6%	74.1%	12.3%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23	30	8	61
		성격유형중 %	37.7%	49.2%	13.1%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20	25	15	60
		성격유형중 %	33.3%	41.7%	25.0%	100.0%
전체		빈도	54	115	33	202
		성격유형중 %	26.7%	56.9%	16.3%	100.0%

〈표 11〉 성격 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

		처한 상황		전체	
		일상	공상(낮선)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68	13	81
		성격유형중 %	84.0%	16.0%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51	9	60
		성격유형중 %	85.0%	15.0%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37	20	57
		성격유형중 %	64.9%	35.1%	100.0%
전체		빈도	156	42	198
		성격유형중 %	78.8%	21.2%	100.0%

n=176), 유형 2는 감정형답게 심리적 갈등이 나타난 도서를, 항상 활기차고 힘에 넘치며 적극적인 유형 8이 행동상의 갈등이 나타난 도서를 가장 많이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5는 대출도서에 나타난 갈등 양상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서 외부 사회와의 갈등이 나타난 도서를 대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 것은 관찰가요 사고형다운 반응이다(〈표 12〉 참조).

4.10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갈등 대상

대출도서의 갈등 대상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1.961, p=0.000$,

n=176), 전반적으로는 인물과의 갈등이 5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유형 2는 인물과의 갈등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 조직문화와의 갈등 비율은 매우 낮았다. 유형 8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성격유형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 생각에 자신을 맞추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2번 유형은 역시 인간관계가 주된 갈등대상이 된 책에 관심을 보이고, 사회나 조직에 관심을 덜 갖는다. 반면 지도자 유형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하는 8번 유형이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적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표 13〉 참조).

〈표 12〉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갈등 양상

			갈등 양상			전체
			심리적 갈등	행동상의 갈등	외부 사회와의 갈등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26	17	3	46
		성격유형중 %	56.5%	37.0%	6.5%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27	27	18	72
		성격유형중 %	37.5%	37.5%	25.0%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21	28	9	58
		성격유형중 %	36.2%	48.3%	15.5%	100.0%
전체		빈도	74	72	30	176
		성격유형중 %	42.0%	40.9%	17.0%	100.0%

〈표 13〉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갈등 대상

			갈등대상			전체
			인물(인간관계)	사회, 조직문화	자기 자신(욕망)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35	2	9	46
		성격유형중 %	76.1%	4.3%	19.6%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34	24	14	72
		성격유형중 %	47.2%	33.3%	19.4%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28	25	5	58
		성격유형중 %	48.3%	43.1%	8.6%	100.0%
전체		빈도	97	51	28	176
		성격유형중 %	55.1%	29.0%	15.9%	100.0%

〈표 14〉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반동 인물

		반동인물			전체	
		악인	일상인	자기자신		
성격 유형	2번 유형 (협조자)	빈도	1	42	3	46
		성격유형중 %	2.2%	91.3%	6.5%	100.0%
	5번 유형 (관찰가)	빈도	12	42	18	72
		성격유형중 %	16.7%	58.3%	25.0%	100.0%
	8번 유형 (지도자)	빈도	13	33	12	58
		성격유형중 %	22.4%	56.9%	20.7%	100.0%
전체		빈도	26	117	33	176
		성격유형중 %	14.8%	66.5%	18.8%	100.0%

4.11 성격유형에 따른 대출도서의 반동 인물

대출도서에 나타난 반동 인물은 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8.479$, $p=0.001$, $n=176$), 전반적으로는 일상인과의 갈등이 66.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유형 5와 유형 8은 일상인과의 갈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나타난 반면에 유형 2는 일상인과의 갈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갈등대상에서 보는 양상과 같다. 즉 유형 8이 악인을 반동인물로 택하고 있으며, 유형 2는 확연히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5. 결 론

성격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에서 2번, 5번, 8번 유형으로 나타난 6학년 학생들이 5학년이었던 2011년 3월 2일부터 현재 6학년인 2012년 5월 31일까지 빌려간 대출도서목록을 뽑았다. 그중에서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대출해간 도서와 필독서

에 속한 책을 제외한 280권의 도서를 성격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도서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도서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에 의하여 1차적인 선호도서 특성 분석기준을 만들어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여 영역과 지표, 항목설정이 적합한지를 물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과 현장사서, 학생, 학부모도우미 등이 모여 1차적인 기준에 의하여 작품 2권을 시험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선호도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2차적인 기준으로 장르, 테마, 인물, 배경, 갈등(사건)의 5개 영역과 주제를 비롯한 23개 지표에 94개의 분석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280권의 대출도서를 분석하고 그것을 성격유형과 관련성이 있는지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주제, 주인공의 연령, 성별, 시간적 대처, 캐릭터의 특성,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처한 상황, 갈등양상, 갈등대상, 반동인물 등 11개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에 의하여 유형별 선호도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격유형 2번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문학 주제를 훨씬 더 선호하며, 5번과 8번 유형은 2번 유형에 비하여 역사를 비롯한 과학류의 주제를 선호한다.

② 성격유형 2번은 다른 유형보다 여자가 주인공인 도서를 선호하며, 8번 유형은 남자가 주인공인 도서를 훨씬 더 선호한다.

③ 세 유형 모두 어린이답게 주인공이 어린이인 도서를 선호하지만 성격유형 5번은 다른 유형보다 성인이 주인공인 도서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성격유형 2번은 시간대처에 있어서 현재 지향적인 도서를, 5번 유형은 미래지향적인 도서를 선호하나 8번 유형이 과거 지향적인 도서보다 현재지향적인 도서를 선호하는 것은 추후 좀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결과이다.

⑤ 성격유형 2번과 5번은 8번 유형에 비하여 입체적 캐릭터를 훨씬 더 선호하고 8번은 평면적 캐릭터, 입체적 캐릭터, 혼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⑥ 성격유형 2번은 시간적 배경이 현재인 이야기를 선호한다.

⑦ 성격유형 2번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현재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선호한다. 8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공상세계 모두를 골고루 선호하면서 미래 어느 시점의 상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선호하고 있다.

⑧ 세 유형 모두 주인공의 일상적인 상황을 선호하고 있지만 2번과 5번은 8번에 비하여 미래의 낯선 곳을 덜 선호하고 있다.

⑨ 성격유형 2번은 심리적 갈등, 8번은 행동상의 갈등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선호하며, 5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외부사회와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⑩ 성격유형 2번은 갈등대상이 인물인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좋아하지만 사회조직문화가 갈등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8번 유형은 자기 자신이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번은 갈등대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⑪ 성격유형 2번은 주변의 일상인이 반동인물인 이야기에 압도적으로 끌려있고 성격유형 8번은 다른 유형보다 악인이 반동인물로 나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성격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격유형 2번은 문학을 좋아하며, 여자어린이가 현재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겪어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선호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이 주된 이야기를 좋아한다. 상냥하고 명랑하며, 앞장서서 타인을 도와주기 좋아하여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타인의 비난이나 비판에 아주 민감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2번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② 성격유형 5번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선호한다. 문학도서에서는 성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며,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선호하지만 낯선 공상세계가 배경인 도서는 덜 선호한다. 갈등에 있어서는 다른 두 유형이 자기 자신 혹은 사회조직문화 등 대상이나 양상에 있어 진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해 자기 자신, 사회, 인간관계 등에 고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식을 중시하고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 방

관적인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5번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보인다.

③ 성격유형 8번은 인문사회과학 이야기를 선호한다. 남자가 주인공이면서 미래 어느 시점 낮은 곳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지도자유형답게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갈등이 적은 대신 사회조

직을 대상으로 한 행동상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를 선호한다. 다른 어느 유형보다 악인을 반동 인물로 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역시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보살피는 보스 기질을 지닌 8번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보이는 측면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길자. 2007. 『독서치료를 통한 여대생의 부정적 정서회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2] 김수경. 2006.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3] 로어, 리처드, & 에베르트, 안드레아스. 2006. 『내 안에 접힌 날개』. 서울: 바오로딸.
- [4] 리몬 케넌, S. 2003. 『소설의 현대 시학』. 서울: 예림기획.
- [5]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6] 염세영. 2005. 『시설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7] 이정원. 2012. 문헌정보학에서의 서사학의 의의. 『문헌정보학과 서사론 특강 자료』, 2012년 5월 19일. 경기대학교 컨퍼런스실.
- [8] 이희자. 2006.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치유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9] 임미화. 2007. 『청소년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용 도서평가: 갈매기의 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독서지도학과.
- [10] 정재희. 1999.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시스템 개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1]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2] 『조선일보』, 2012. 학교폭력 처방은 청소년기 심리에 대한 깊은 분석 위에서, 1월 17일.
- [13] 최영임. 2011. 『인성과 관련된 다중지능 계발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4] 한국도서관협회.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5] 한국도서관협회. 2005.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청소년·어린이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6] 한명자. 2004. 『독서치료가 발표불안 아동의 학습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 [17] 한윤옥. 1989. 아동의 심리발달과 도서선호의 변화. 『도서관학』, 17: 105-159.
- [18] 한윤옥. 1997. 아동문학도서에 나타난 주인공의 민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59-77.
- [19]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5.
- [20] 한윤옥.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II: 사례분석을 통한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 예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49-275.
- [21] 한윤옥. 2008.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2] 한윤옥. 2010. 성격유형과 독서성향 관계에 기초한 독서치료 가능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5-59.
- [23] 한윤옥, 조미아. 2011. 독서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독서성향의 관련성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 69-88.
- [24] 한윤옥, 조미아, 고정원, 백진환. 2012. 성격유형을 적용한 청소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78-97.
- [25] Iser, Wolfgang. 1971. "The reading proces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New Literary History*, 3: 279-299.
- [26] World Values Survey (WVS). 2007. [online].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Kil-Ja. 2007. *The Grounded Theoretical Study on Negative Emotion Recovery Proc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Bibliotherapy*. Ph.D. di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2] Kim, Soo-Kyoung. 2006. *A Study of Bibliotherapy Program on the Wounded Emotion of Housewives*. Ph.D. di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3] Rohr, Richard, & Ebert, Andreas. 2006. *(Das) Enneagramm: Die 9 Gesichter der Seele*. Seoul: Baohrottal.
- [4] Rimmon-Kenan, Shlomith. 2003.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Seoul: Yelim Gihoek.

- [5] Seo, Eun-Guk, et al. 2010. "Koreans' happiness and mental health index: Koreans' happiness index and its meaning." *Korea Institute of Psychology Annual Conference Journal*, 213-232.
- [6] Yom, Se-Young. 2005. *Bibliotherapy for Youth in Residential Care*.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 [7] Lee, Jung-Won. 2012. "The significance of narrative theory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minar Materials*, 19 May, 2012. Kyonggi University.
- [8] Lee, Hui-Ja. 2006. *A study for Public Library Bibliotherapy Program Participants's Healing*.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9] Lim, Mi-Hwa. 2007. *Bibliotherapy Books for Youth to Improve Self-identity Ratings*. M.A. Thesis, Kyonggi University.
- [10] Jeong, Jae-Hee. 1999. *Development of Reading Bibliography Information System for Promoting Reading Cultur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1] Cho, Mi-Ah.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Instruction on the Creative Ability 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h.D. di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12] "Prescription of school violence on a deep analysis on adolescent psychology." 2012. *The Chosun Ilbo*, 17 January.
- [13] Choi, Young-Im.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ding Instruction Programs for Developing Multiple Intelligences Related to Personality*. Ph.D. dis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4.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Practices: For Adult*.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5]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5.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Practices: For Youth Childre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6] Han, Myoung-Ja. 200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ibliotherapy on Changing the Learning Attitudes of Children Who Had Anxiety about Announcement*. M.A.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17] Han, Yoon-Ok. 198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development and book prefer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 105-159.
- [18] Han, Yoon-Ok. 1997. "East Asian American character's characteristics in children's fictional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59-77.
- [19] Han, Yoon-Ok. 2003.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5-25.

- [20] Han, Yoon-Ok. 2004. "A study on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practices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249-275.
- [21] Han, Yoon-Ok. 2008. *Reading Education and Application of Material*.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2] Han, Yoon-Ok. 2010.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bibliotherapy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5-59.
- [23] Han, Yoon-Ok, & Cho, Mi-A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type and reading tendency of the youth in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69-88.
- [24] Han, Yoon-Ok, Cho, Mi-Ah, Ko, Jung-Won, & Paek, Jin-Hwan.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reading guidance program for the youth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78-97.